

‘사법시험 존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망국병 그만” VS “돈스쿨 안돼”…커지는 갈등

로스쿨변호사 600여명 단체 만들어 집단 대응  
광주변호사회 64% 존치 원해…교수들도 이전  
“밥그릇 싸움 말고 공정한 선발 더 중요” 지적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법조계·학계를 넘어 시민들에게까지 번지는 등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현직 변호사들이 별도 모임을 꾸려 집단 대응에 나서기로 해 기존 변호사회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3일 광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로스쿨 변호사 600여명은 4일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한법협)’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한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단체로 이들이 별도 모임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창립총회 공지에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 퇴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로

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체계적 대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록권을 지키려는 일부 기성 법조인과 정치권·언론 네티즌들이 로스쿨을 의도적으로 ‘돈스쿨’, ‘음서제’ 등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 대다수는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이 존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에서도 사시 존치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4%가 존치를 원했다. 반대 의견은 35%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총 365명이고, 이 중 19%인 70명만이 로스쿨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사시 반대 의견은 의외로 높은 셈이다.

광주지역 변호사들은 ‘기회 균등을 통한 고졸이하·영세서민의 법조계 진출’, ‘공정 시험을 통한 선발’, ‘로스쿨 선발과정과 법조계 진출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 등을 들어 사시 존치를 원했다. 반면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법조계 일원화 제도 혼란 초래’, ‘로스쿨 전형·장학제도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진출 용이’ 등을 내놓았다.

학계에서도 로스쿨 교수들과 일반 대학의 법대 교수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홍엽 조선대 법대학장은 “법률이 양성의 주된 경로는 로스쿨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입학과정의 공정·투명성과 법관 임용에서

의 지역 차별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법시험도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사시 망국병’ 등 사시의 폐해가 커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존치 논쟁에 앞서 그 폐해가 제거됐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사시 폐해를 되풀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접근이 어렵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배려자 144명을 매년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취약계층의 접근이 더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 박모(40·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공정한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중요하다”며 “사시 존폐 논쟁이 결국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장흥교도소 40년만에 친환경 새 청사

용산면 어산리 이전…첨단시설 갖춰 쾌적

김현웅 법무 취임후 첫 방문  
“전진한 사회 복귀의 장 되길”

장흥교도소가 개소 40년만에 친환경 첨단시설을 갖춘 새 보금자리로 이전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인 전남을 방문했다.

법무부는 3일 장흥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낙연 전남지사, 김희관 광주고검장, 김해수 광주지검장,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용산면 어산리 시대’를 열었다.

어산리 새 교도소는 부지 16만7919㎡에, 건물 13개동 2만104㎡ 규모이며, 408억원이 투입됐다. 태양열을 이용한 시스템 활용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고, 교육실 3곳과 상담실 3곳, 대기실 2곳을 갖추고 있다.

수용정원은 이전보다 2배 늘어난 500명이다. 독거실 비율은 전체 253실 중 153실(이전 65실 중 8실)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접견대기실과 접견실도 각각 250㎡, 4㎡ 면적으로 옛 교도소보다 3배가량 늘었다.

특히, 장흥교도소는 여타 교도소와 달라 정문 담장을 없애는 등 혐오감을 줄였다. 또 모든 수형자방에는 턱을 없앴고 바닥



김현웅(앞에서 세번째) 법무부장관이 3일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 중앙관제센터를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난방, TV 설치 등 시설을 크게 개선했다.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인문학교육·성폭력사법교육·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출소에정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편백나무 가공 가구 제작·버섯직업

훈련장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형자 교도작업을 시행, 연간 1억30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장흥교도소가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의 장과 믿음의 법치를 이루는 교정시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최근 장흥을 원도리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전남공무원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무상양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교도소도 오는 10월께 문화동에서 삼각동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무취재본부장 kykim@

## 나주 혁신도시 ‘흙탕 수돗물’ 사태

상수도관 매설 과정 토사 유입 때문

임주민들 손배소 영향 미칠듯

지난 2월 나주 빗가람혁신도시에서 발생한 흙탕 수돗물(탁수·濁水)사고는 상수도관 매설 때 관에 유입된 토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탁수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용역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사를 대상으로 한 임주민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실시공 책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사용역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배병욱 교수)이 3개월간 진행했으며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주시가 주관하고 비용(4900만원)은 혁신도시 시행 3사와 물 공급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분담했다.

용역팀은 화순정수장, 다도배수지-혁신도시 초입부 2.1km 구간, 혁신도시 전

체 상수도 관로를 과업 범위에 포함시켜 용역을 했다.

배 교수는 “용역 결과 공동혁신도시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관로 내부로 유입됐으며 통수 전에 관로를 제대로 세척되지 않아 탁수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이와함께 “사고 이후 관세척(피강)을 통해 혁신도시 내 모든 상수관은 깨끗하게 세척됐다”며 “혁신도시내 수돗물 수질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용역팀은 탁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신도시 건설 단계부터 물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상수도공사 완료 후 관세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 수립, 상수도 공사 참여 기술자 대상 탁수사고 사례교육 의무화 등을 내놔다.

나주시는 “시행 3사와 함께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빗가람혁신도시에서는 지난 2월 26일 흙탕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태가 발생해 지난 4월 8일 정상화됐으며, 이 기간 공동주택 등에 1.8ℓ 기준 생수 78만여 병이 공급되기도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 별거 남편이 흥기 휘둘러 아내 사망

여수에서…동거남 부상

본인은 자해 위독 상태

여수에서 40대 여성이 별거중이던 남편이 휘두른 흥기에 찔려 숨졌다.

3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여수시 둔덕동 한 아파트에서 장모(45)씨가 A(여·43)씨와 A씨의 동거남 B(43)씨를 흥기로 찔러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A씨 등에게 흥기를 휘두르고 난 뒤 현장에서 자신의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해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부터 수년째 별거 중인 A씨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들어오는 A씨를 쫓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제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스마트폰 발린 이유 보니…모바일 상품권 몰래 구매한 20대



○…편의점 종업원들 속에 스마트폰을 잠시 빌린 뒤 교묘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이익을 챙긴 20대가 경찰서행.

○…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26)씨는 지난 7월14일 새벽 2시에 광산구 쌍암동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민모(여·51)씨의 휴대전화로 39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 가로채는 등 10여명을 상대로 850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김씨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전화 좀 쓰자”며 빌린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입해 자신의 이메일로 받고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는데, 경찰에서 그는 “상품권을 구매할 때 신분 확인절차가 없었고 거래 흔적이나 메시지를 지우고 전화를 돌려주면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했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펜션·전원주택단지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식당  
야외결혼식장·연수원·요양원·찻집

관광특구!  
투자가치 확신!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토 9168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 가능  
도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귀농/귀촌 전남지역 1순위 지역
- 감정가 - 28억 / 시세 30억 정도
-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 경매 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장비 등등  
1200만원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1억원 이상  
수익률-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